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고교 야구부 지원 등
지정 고향사랑기부제 개시

고창군이 '고교 야구부 지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사업으로 '고교 야구부 지원'과 '저소득층 해외연수 보내주기 사업'을 선정해 모금이 시작됐다. 고창군 영선고 야구부는 2023년 10월 재창단 때 고등학교 야구 부흥을 이끌고 있다. 기부금은 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글러브와 배트 등 각종 장비 구입과 운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사정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앞날창창'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배려대상 중·고등학교생들의 해외연수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전주병원 등,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협약

부안군과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은 지난 23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부안군 거주 외국인 부안군민·부안군청 직원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재백 전주병원 원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오수영 전주병원 경영기획실장 김병주 전주병원 특수검진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이 '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전담 검진 의료기관 지정 및 부안군 거주 외국인, 부안군민·부안군청 직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익현 군수는 "전주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진방식으로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제공, 건강복지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올 한해 성과 · 내년 군정계획 발표

심덕섭 고창군수, 기자간담회... “2025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만들 것”
신활력산단, 삼성전자 소유권 완전이전 이어 연말 1600억원 투자유치 성과 ‘눈길’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2024년이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3일 오후 연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성과와 내년 군정계획을 발표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착공 10여년 만에 삼성전자의 소유권 완전이전에 이어, 국내 최고 에너지저장장치 소재기업 등의 투자협약으로 고창이 전북 전체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해 나가는 발판 확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해를 돌아봤다. 이외에도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투자협약’, ‘운곡탐사르습지센터·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전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계절근로자 1800명 입국’,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성사’, ‘보훈화관 건립착수·독립유공 유공자 발굴’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전북도 유일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관련,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군민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감사사를 전했다.



고창군의 2025년 핵심 슬로건은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다. 심덕섭 군수는 “새해에는 대선 정국 등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역발전 전략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고창군 4대 핵심사업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외국인계절근로자 3천명 이상 유치 등) △소멸위기 극복, 미래창단산업도시로의 변화(삼성전자 최첨단 물류센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고창종합테마파크 착공 등) △천만 관광도시의 자긍심 세계속에 빛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전북특별자치도도민체전, 세계유산축전, 대한민국 수산업의날 성공개최 등)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출산장려금지원·난임의료비지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등)이다.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부안서 소통 · 협력의 장 열어

부안군의회, 14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의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승진선로 설치 문제, △사화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개의 안전과 각종 지역의 당면 현안과 공동 사업 발굴 추진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박병래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더욱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며 단단히 연대해 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상권 회복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800억원 규모 발행

정읍시, 1인당 월 50만원 · 연 한도액 500만원까지 구매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정읍사랑상품권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발행액 60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내년에는 발행 방식을 기존의 분기별 발행에서 월별 발행으로 변경해 매월 60억원씩 꾸준히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해 시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인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되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

만, 1월과 9월에 발행되는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매월 1일 오전 8시에 판매를 시작하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 우체국 · 로컬푸드 생산농가,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 컨퍼런스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에서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함께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안군 부안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등 핵심 협업 주체들이 참석하여 2024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사

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은 우체국 소포물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를 기반으로 하며, 지난 2021년 사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매출 7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32억 원의 매출을 올

리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입증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판로 확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지진 피해 농가 돕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일러스트형 관광 홍보 달력 제작 ‘인기’

정읍시가 2025년 관광 홍보 달력을 제작해 배부하며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정읍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 달력은 정읍 관광 명소의 매력을 톡톡 튀는 일러스트로 표현해 아늑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벽걸이형 2200부와 탁상형 2500부로 나누어 제작된 달력은 정읍의 관광 안내소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달력에는 매달 정읍의 계절별 명소를 일러스트로 담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정읍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1월 내장산 우화정 절경 △2월 쌍화차거리 △3월 김명관 고택의 봄 풍경 △4월 정읍천 벚꽃길 △5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6월 월영습지와 솔티숲 △7월 피향정 △8월 정읍천 미로보수 △9월 내장산 문화광장 △10월 구절초 지방장원 △11월 내장산 단풍 △12월 만석보 쉼터 일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명관 고택의 3월 모습은 매

년 봄 탐스럽게 피어나는 영산홍이 만개한 화사한 고택 풍경을 담았고, 6월에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탐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신비롭고 생동감 넘치는 초록의 에너지를 전한다. 달력에는 정읍의 관광 정보를 담은 부가 콘텐츠도 포함돼 있다. 정읍시 관광 안내지도, 시티투어 및 관광안내소 정보, 문화관광해설지 현황 등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또한 달력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정읍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접속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내 손으로 만드는 정읍’ 페이지에서는 피향정의 연꽃이 핀 모습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달력은 정읍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와 풍부한 정보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오고, 정읍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